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그레고리오스 신학자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1월 25일

루가 제15주일

성 디모테오스 사도

제6조 / 조과복음 9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6조 부활 찬양송 / 82, A 216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당 찬양송
-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시기송 / 164, B 159
- 사도경 : 디모테 전 4,9-15 / 봉독서 396
- 복음경 : 루가 19,1-10 / 132, B 84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 보르피리오스의 지혜로운 말씀 “거룩한 제단은 무엇인가요?”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제단은 이 지상에서 가장 값진 것입니다. 왕의 왕좌, 대통령의 자리, 학문적 배경 등은 이것에 비하면 가치가 작습니다. 거룩한 제단은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고,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고, 천사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경이로운 광경입니다. 나는 여러 번 거룩한 제단에 손을 대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누가 집전하는 것입니까? 성직자 혼자 집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중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까? 성직자와 같은 자세로 신자들도 임해야만 합니다. 모두 함께 집중한 상태입니다. 하느님께 전적으로 나아간 상태입니다. ‘헤루빔’이 신비로이 모본하듯

이’ 이 시간에 우리는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단 앞에,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생활에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집전자들입니다. ... 우리가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하시나요! 우리 앞에서 위대한 희생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대한 사랑으로 희생되시러 오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행복에 눈물을 흘려야합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성당에 오나요? 누굴 모욕 주기 위해 오는 건가요? 성당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



잘 아시다시피 첫 창조물이 낙원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낙원의 문은 닫혀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말씀이신 이가 다시 인간을 낙원에 들게 하기 위하여 무한한 사랑으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영원한 삶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이 주님을 취하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이 구원의 길과 방법이 되신 것입니다. 당신의 몸과 피를 양식으로 주셔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양식은 유일한 양식이며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진정한 빵을 내려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빵은 하늘에서 내려 오는 것이며 세상에 생명을 준다.》(요한 6,32-33) 그러면 누가 진정한 빵일까요? 이 질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요한 6,35)

그러면 이 하늘의 양식이 어떻게 이 땅에 왔을까요? 하느님의 뜻대로 살며 순종하며 덕을 쌓은 성모님께서 잉태하시고 삶의 양식인 그분을 낳으셨습니다.

오직 이 하늘의 양식인 주님만이 인간에게

양식을 제공하며 부활의 삶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께서는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 온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 온 살아 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요한 6,49-50)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는 성체성혈 성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정말 잘 들어두어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요한 6,53-55)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성찬예배에서 성체성혈 성사를 영하러 가까이 올 때 당신의 마음 속 깊숙하게 당신의 몸이 단순히 하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 것이라 느끼나요?

이미 시작 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성체성혈 성사에 자주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새해를 위한 기도

나의 주님,
당신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주제에 관해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분노, 질투, 시기심, 복수심, 거짓말, 자만심 그리고 제 마음을 더럽힌 사악함과 여러 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투쟁을 당신이 도와주시길 간청합니다.
당신께는 어떤 불가능한 일도 없음을 제가 믿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도와주소서.

- 1) 올 한 해 진심 어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 2) 올해에는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 3) 금년에는 저의 잘못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저는 이것들이 제 마음을 깨끗이 해주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느님을 보게 될 것이다.”하신 당신 말씀대로 당신의 얼굴을 뵈올 수 있게 해줄 세 개의 스펀지와 같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 겨울 수련회 결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난 1월 12일~15일까지 춘천에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 회개는 하늘나라의 문’이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전주, 울산 그리고 춘천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재미있고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를 비롯하여 예레미야 조정진 신부, 일라리온 정종혁 신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 그리고 요한 박인곤 보제가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수련회 주제인 회개에 대해 아이들이 배우고 고백성사에 참여하는 방법과 직접 고백성사에 임하는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외 활동으로는 눈썰매를 비롯하여 다양한 놀이를 함께하였고 아이들과 오락 시간을 통해 재밋

고 즐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기간 동안 주방에서 봉사해주신 아나스타시아 사모, 테오도티 사모, 베로니카, 바실리오스, 이리니, 소피아 교우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스텝으로 수련회의 진행과 아이들을 잘 지도해주신 엘레니, 소티리아, 미하엘라, 흐리스티나, 토마스, 논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설날 추도식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하는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풀리바를 준비하여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설날 예배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설 명절에 성찬 예배와 함께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오전 9시에 성찬예배에 이어서 추도식이 있겠습니다.

주간 예식

· 1월 25일(수) ▷ 성 그레고리오스 신학자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